

2016. 12

2016년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영동향 조사

【 요 약 】

☐ 2016년 부산지역 주요 소매유통업계 매출은 전년대비 2.2% 증가

- 부산지역 주요 산업들의 업황 부진과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란 정치적 불안,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백화점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점포 확장 및 신규 개점 확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소비 진작 프로모션과 더불어 ‘원아시아페스티벌’ 등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역 주요 소매유통업의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

☐ 업태별 매출현황

○ 2016년 부산지역 주요 소매유통업계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2.2% 증가

- 백화점은 연중 지속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담보상태를 면치 못했으나,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매장 확장(센텀신세계몰 개점) 등의 요인으로 전체적으로는 매출 증가
- 대형마트는 소비심리 위축의 영향과 과다 입점에 따른 경쟁격화 등으로 매출 감소
- 슈퍼마켓은 각종 규제에 따른 악영향에도 일부 지역 업체의 마케팅 강화에 힘 입어 보합세
- 편의점은 신규 브랜드의 점포 확대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관련 품목 판매 호조로 매출 증가

○ 2017년 부산지역 주요 소매유통업계 매출전망은 전년대비 0.9% 증가로 보합세 전망

- 백화점은 외국인관광객 마케팅 확대와 연중 프로모션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의 지속으로 전년대비 0.5%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난 반면, 편의점은 신규매장의 지속적인 확대로 전년대비 7.6% 증가 전망
- 실소비재 비중이 높아 경기 불황의 영향을 직접적 받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PB상품 확대, 판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유통규제 강화의 우려로 전년대비 각각 0.9%, 0.6% 감소로 보합세 전망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전체
2016년 매출실적	3.1□	△1.5□	0.7□	6.8□	2.2□
2017년 매출전망	0.5□	△0.9□	△0.6□	7.6□	0.9□

☐ 고객동향(2015년 대비)

- 백화점 일평균고객수 7.2% 증가, 객단가 3.8% 감소
- 대형마트 일평균고객수 보합, 객단가 1.5% 감소
- 슈퍼마켓 일평균고객수 1.4% 감소, 객단가 2.1% 증가
- 편의점 일평균고객수 4.5% 증가, 객단가 2.2% 증가

목 차

I. 조사 개요	3
II. 조사 결과	4
1. 매출실적 및 전망	4
2. 고객동향	7
3. 고용현황	8
4. 최근 소매유통업계 Hot issue	9

I .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의 경영동향 및 전망을 조사·분석하여 소매유통업체의 경영활동 계획과 정책 건의 및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2. 조사방법 및 대상

- 조사방법 : 전화 및 팩스 조사
- 조사대상 : 부산지역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34개체 1,508개점

3. 조사기간

- 조사표 발송 및 회수 : 2016년 12월 28일 ~ 12월 18일
-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2016년 12월 19일 ~ 12월 28일

4. 조사내용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영일반 사항(매출실적, 고객동향, 고용동향 등)

5. 유의사항

- 동 조사는 부산 소재 전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니므로 소매유통시장에 대한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시장전체에 대한 통계치를 제공하지는 않음.
- 각 항목의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어 그 합이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II. 조사결과

1. 2016년 매출실적 및 2017년 전망

□ 2016년 지역 주요 소매유통업의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2.2% 증가

- 부산지역 주요 산업들의 업황 부진과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란 정치적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백화점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점포 확장 및 신규 개점 확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소비 진작 프로모션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관광객의 증가로 지역 주요 소매유통업의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2.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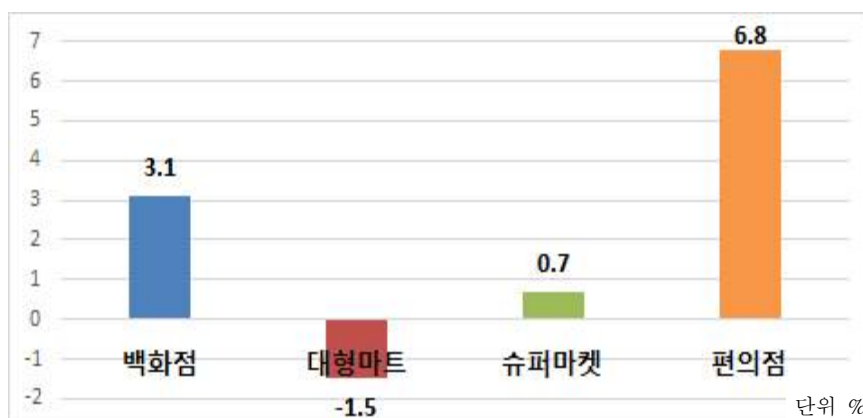
□ 2016년 백화점의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3.1% 증가

- 백화점은 년중 소비심리위축의 지속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대부분의 점포에서 매출이 소폭으로 줄거나 정체했으나, 일부 점포에서 매장 확대(신세계센텀시티점 신세계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의 프로모션의 영향과, 외국인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전년대비 3.1% 증가

□ 2016년 대형마트의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1.5% 감소

- 대형마트는 실소비재 비중이 높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연중 대규모 프로모션이 외국인관광객과 명품 및 화장품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생활용품 중심의 대형마트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역 내 대형마트 과다입점에 따른 경쟁 격화와 소비자들의 소비채널이 온라인으로 이동됨에 따라 매출이 전년대비 1.5% 감소

【 부산 소매유통업대별 매출 증감률 】



□ 2016년 슈퍼마켓의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0.7% 증가로 보합세

- 슈퍼마켓은 편의점 및 대형할인마트 등 업태 간 경쟁 격화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신규 출점제한, 의무휴업제 등 각종 유통 규제의 지속으로 대부분의 점포에서 매출이 감소했으나, 일부 신선식품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은 지역기반 유통업체의 마케팅 확대 노력에 기인해 전체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0.7% 미미한 증가로 보합세

□ 2016년 편의점의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6.8% 증가

- 편의점은 부산지역에서의 공격적인 점포 확대로 신규 점포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이른바 ‘혼밥·혼술’ 트렌드의 등장으로 인한 도시락, 주류 및 안주류 등 간편식 판매 증가와 가성비 정책에 기반을 둔 각종 PB상품의 확대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전년대비 6.8% 증가

【 부산 소매유통업태별 매출실적 및 전망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망	증감률(%)	
				2015년 대비 (실적)	2016년 대비 (전망)
백 화 점	3,232,000	3,331,000	3,348,800	3.1□	0.5□
대 형 마 트	1,171,500	1,153,900	1,143,000	-1.5□	-0.9□
슈 퍼 마 켓	1,013,386	1,020,630	1,014,400	0.7□	-0.6□
편 의 점	718,000	766,800	825,000	6.8□	7.6□
계	6,134,885	6,272,330	6,331,200	2.2□	0.9□

주) 백화점을 제외한 업태는 전수조사가 아님

□ 2017년 지역 주요 소매유통업계의 매출은 전년대비 0.9% 미미한 증가로 보합세 전망

- 조선 및 해운업,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업종의 회복세의 불투명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되는 가운데 이와 함께 정치적 위기에 따른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로 소비심리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소매유통업계의 소비 진작을 위한 판촉행사 등의 마케팅 확대 노력, 1인 가구 맞춤형 상품 및 PB상품 확대, 편의점 등의 신규 점포 확대, 외국인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7년 매출은 전년대비 0.9% 소폭 증가 전망

□ 2017년 백화점의 매출은 전년대비 0.5% 미미한 증가로 보합세 전망

- 백화점은 외국인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바탕으로 명품 및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확대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과 민간 소비 위축의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매출은 전년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2017년 편의점의 매출은 전년대비 7.6% 증가 전망

- 편의점은 신규매장의 지속적인 개점과 1인 가구 맞춤형 상품의 확대, 신규 PB상품 출시, 모바일 및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매출이 전년대비 7.6% 증가 전망

□ 2017년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매출은 각각 전년대비 0.9%, 0.6% 감소로 보합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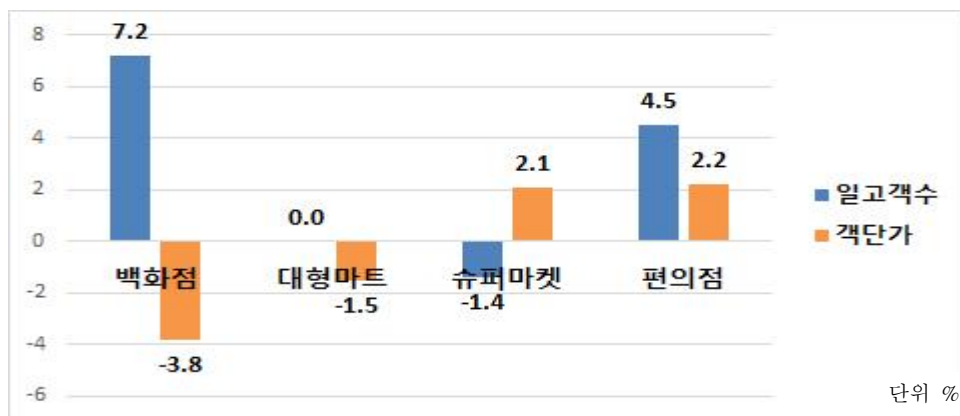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PB상품 확대, 배송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판촉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기 불황에 따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최근 의무휴업일수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각종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2. 고객동향

- 고객수는 백화점 7.2%, 편의점 4.5% 증가했으나 슈퍼마켓 1.4% 감소
 객단가는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각각 2.1%, 2.2% 증가했으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각각 3.8%, 1.5% 감소

- 백화점은 최근 부산지역 외국인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내방고객은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으나, 청탁금지법 등의 시행과 가성비 트렌드 확산의 영향으로 객단가는 전년대비 3.8% 감소
- 대형마트는 내방고객수는 변동이 없으나, 경기 위축에 따라 객단가는 1.5% 소폭 감소

【 일평균 고객수와 객단가 증감률 】



- 슈퍼마켓은 소비자들의 1인 가구의 소비채널이 온라인과 편의점 등으로 이동됨에 따라 방문고객수는 1.4% 감소했으나, 객단가는 2.1% 증가
- 편의점은 점포 확대에 따라 전체 내방 고객수는 전년대비 4.5% 증가하였고, 객단가는 2.2% 증가하였음. 다만 점포당 내방고객수는 전년대비 1.7%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신규 개점 편의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일고객수와 객단가 】

(단위: 명, 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일고객수	객단가	일고객수	객단가	일고객수	객단가
백화점	123,711	71,577	132,600	68,824	7.2□	-3.8□
대형마트	65,220	49,212	65,220	48,473	0.0□	-1.5□
슈퍼마켓	125,067	22,199	123,314	22,676	-1.4□	2.1□
편의점	550,200	3,575	574,825	3,655	4.5□	2.2□

주) 백화점을 제외한 업태는 전수조사가 아님

3. 고용동향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계의 고용동향은 전년대비 1.8% 증가

- 백화점과 편의점을 제외한 소매유통업계는 신규 점포 개점이나 확장이 거의 없어 전체 고용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 소매유통업태별 고용현황 】

구 분	증감율(%)
백화점	0.6
대형마트	0.2
슈퍼마켓	0.0
편의점	3.9

- 편의점은 신규 점포 확대에 따라 고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점장급 정규 직원은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직원은 4.4% 증가
- 백화점은 신규 점포 개장(확장)에 따라 고용인원이 소폭 증가

【 부산 소매유통업태별 고용직종별 구성비 변화 】

(단위: 명, %, %p)

구 분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2015년	2016년	증감	2015년	2016년	증감	2014년	2015년	증감
백화점	955	960	0.5	181	184	1.7	102	102	0.0
대형마트	2,508	2,524	0.6	—	—	—	2,227	2,219	-0.4
슈퍼마켓	1,835	1,835	0.0	303	303	0.0	229	229	0.0
편의점	2,458	2,535	3.1	—	—	—	3,868	4,037	4.4

주) 백화점을 제외한 업태는 전수조사가 아님

4. 최근 소매유통업계 Hot issue

□ '1인 가구'와 '가성비'

- 최근 소매유통업계의 트렌드는 '1인 가구'와 '가성비'로 요약될 수 있는데, 내수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시행, 국정농단 사태 등 정치적 문제까지 실물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기존의 단순한 할인행사로 대응하기 어려워 업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장을 정의하고 있음.
- 기존 1인 가구가 편의점, 온라인 쇼핑물에 국한된 이슈였다면 이제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고가의 브랜드를 배제한 가성비와 결부되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부산지역 편의점의 점포수는 올해 전년대비 6.3%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매출 또한 편차는 있으나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락, 즉석식품 등 간편식과 1인용 생활용품 등의 소비증가가 바탕이 되고 있음. 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의 식재료 소량포장, 1인용 생활용품, 노브랜드 및 자사 PB상품의 확대, 저가 SPA 브랜드 및 중저가 브랜드 입점 확대, 명절 선물세트의 저가품목 확대 등은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음.
- 불황이 지속되는 한 이와 같은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출점규제가 없는 편의점은 신규 점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도 1인 가구, 가성비와 관련된 정책들의 지속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청탁금지법' 시행

- 지난 9월 28일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으로 소매유통업계는 규정에 맞는 상품 가격대 구성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본법 시행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 하려 노력하고 있음.
- 특히 내년 설 명절은 본 법 시행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대목이어서 지역소매유통업계는 상품가액 5만원 이하의 상품 비중을 크게 늘리는 등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본 법의 시행은 앞서 언급한 가성비 트렌드와 맞물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변화를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됨.